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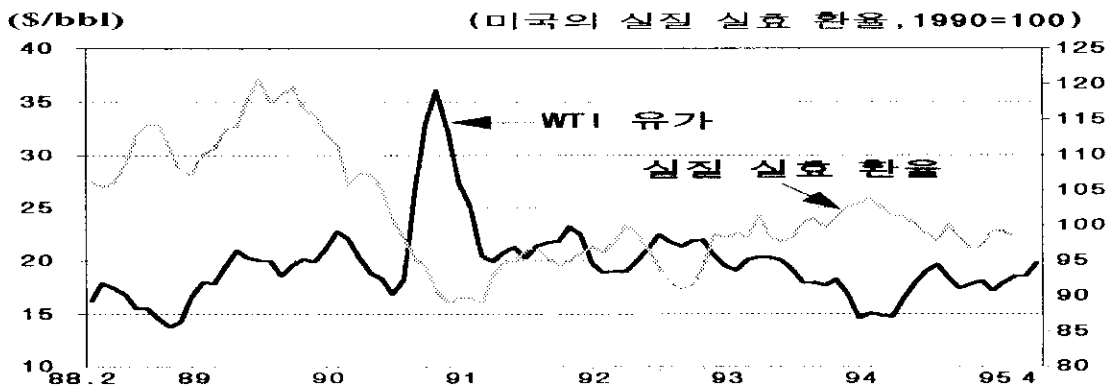
## II. 主要 懸案

### 1. 最近 油價 上昇의 原因과 展望

- (動向) WTI 油價는 8 개월만에 最高値 기록(4월 21일 20.5 \$/bbl)
- (原因) OPEC의 증산 자제, 미국의 채고 감소 및 이란産 원유 구입 금지 조치, 이라크에 대한 UN의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 조치에 대한 이라크의 拒否 意思 表示 등에 기인함
- (特徵) 달러貨 약세, 투기 자금의 유출입은 油價 上昇의 主要因으로 작용
- (展望) WTI 유가는 2/4분기까지 19~21 \$/bbl에서 強保合勢 지속 전망
- (根據) 북해 유전의 보수 공사, 이라크의 원유 수출 재개 지연, 하절기 수요에 대비한 미국의 휘발유 비축 수요 증가 등 需給 要因外에도 달러貨 약세와 투기 자금의 유입 등 市場 外的인 要因이 존재함

- (動向) 油價는 한달만에 2.0 \$/bbl(10.8%) 상승, 8 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 
 - WTI 유가는 3월 21일 18.47 \$/bbl→4월 21일 20.47 \$/bbl(25일 20.35 \$/bbl)
- (原因) 쿠웨이트 석유 노조의 파업(3. 18~24)을 계기로 촉발된 油價 上昇勢는 OPEC의 증산 자제, 유럽 지역 한파로 인한 난방용 원유 수요 증가, 미국의 지속적인 석유 제품 채고 감소(94년말 대비 9.4%), 이란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한 미국의 이란産 원유 구입 금지 조치, UN의 對이라크 경제 제재의 부분 해제 조치에 대한 이라크의 拒否 등 上昇 要因이 잇달아 발생하였기 때문임  
 - 3월중 OPEC 산유량은 전월 대비 20만 bbl/d 감소  
 - 이라크는 UN의 6 개월간 20억 달러의 원유 수출 허용 방침(4월 14일)에 대해, 허용 물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(3 개월간 20억 달러로 증액 요구), 이는 주권 침해 행위라고 간주하여 不滿을 表示하였음

#### < 國際 油價와 달러貨 變動 推移 >



## ○ (特徵) 달러貨 弱勢와 투기 자금 유출입은 油價 上昇에 主要因으로 작용

- 低油價와 결제 통화(달러화) 약세로 인한 OPEC의 實質 購買力 回復 努力
  - 시계열 분석 결과(1988. 2~95. 2), 미국의 實質 實效 換率과 油價(WTI)의 상관 계수는 0.438로, 이는 美 달러貨의 약세가 유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(圖表 參照)
  - 5 엔/달러 하락시 유가는 0.5 \$/bbl 상승 요인 발생(에너지경제연구원 分析)
  - 걸프 연안국과 아랍 원유 수출국들은 현행 원유 거래 방식의 재검토를 주장
- OPEC의 결속력 약화 및 증산으로 OPEC의 市場 占有率이 점차 增加 추세
  - 73년 53.0% → 80년 43.1% → 87년 28.5% → 93년 36.6% → 94년 36.5%
-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품 시장 및 원유 시장으로의 投機 資金의 變換한 流出入 → 원유 가격 결정에 있어서 需給 要因外에도 시장 외적인 요인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

## ○ (展望) WTI 油價는 2/4분기까지 19~21 \$/bbl에서 強保合勢 전망

- 향후 유가는 미국과 UN의 對이라크의 關係 改善 與否에 의해 決定될 것임
  - 이라크가 UN 허용 조치 履行時 원유 수출 물량은 약 70만 bbl/d 수준
- 그러나 계절적 비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, 需給 側面에서도 다소 강세 요인 존재
  - (供給 側面) 북해 유전의 정기 보수 공사(5~6월중 약 20만 bbl/d 감소), 하반기 이라크의 원유 시장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OPEC의 增産 自制 등
  - (需要 側面) 유럽과 일본의 경기 회복세, 통상 5월이 하절기 수요에 대비한 휘발유 비축 시기인 점 등
- 이외에도 원유 시장으로의 투기 자금 유입, 달러화 약세로 인한 산유국의 약화된 實質 購買力 回復 움직임 등은 유가 하락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
## ○ (影響) 국제 유가 상승은 國際收支 惡化 및 物價 不安 유발

- 유가 10%(약 2 \$/bbl) 상승시 우리나라 輸入은 약 12.4 억 달러 純增加 예상
  - 유가 상승분(2 \$/bbl) × 94년 원유 도입량 5억 7,371만 배럴 × 95년 경제 성장률 7.7% × GNP 성장률의 원유 도입량 탄성치 1.15(1988~94)
- 유가 10% 상승시 生産者物價는 0.53% 上昇 效果
  - 산업별 생산자물가 상승 효과는 제조업이 0.70%, 3차 산업(SOC)이 0.61%, 1차 산업이 0.25% 順이며, 제조업중에서는 화학공업이 2.33%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음 (90년 산업연관표 기준, 한국석유개발공사 分析)

(홍 순 직)